

서울 용산시제품제작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75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출일자 : 2022년 8월 29일
- 라. 회부일자 : 2022년 9월 2일

2. 제안이유

- 서울시는 창업기업의 시제품 제작 지원을 위해 2016년 6월부터 용산에 “디지털대장간”을 설치하여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동일 건물 내 제조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8년 8월부터 “용산상상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기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던 “디지털대장간”과 민간과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중이던 “용산상상가”를 통합하여 전자제조지원 특화시설인 “서울 용산시제품제작소”로 운영하기 위한 역량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고자,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탁사무 : 서울 용산시제품제작소 운영
- 위탁기간 : 3년(2023.1.1. ~ 2025.12.31.)
- 위탁유형 : 사무형 민간위탁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1,985백만원('22년 예산)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 추진경위

<디지털대장간>

- 2016. 02. : 용산센터 시제품제작소 민간위탁 운영계획 수립
- 2016. 05. : 제267회 정례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2016. 06. : (주)엔피프틴 민간위탁 협약체결 및 개소
- 2019. 02. : 디지털대장간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 2019. 02. : 제285회 시의회 보고
- 2019. 06. : (주)엔피프틴 민간위탁 협약체결
- 2022. 07. : (주)엔피프틴 민간위탁 종료

※ 당초 2022.05.31.종료이나 용산상상가와 통합용역추진을 위해 2개월 연장함

<용산상상가>

- 2018. 06. : 용산전자 상상가 운영용역 추진계획 수립
 - 2018. 08. : (주)엔피프틴 용역계약 체결 및 운영
 - 2020. 11. : Y밸리 도심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공실)활용 거점공간 조성
 - 2021. 07. : 용산전자상가 일대 창업지원시설 업무이관 (재생정책과→ 창업정책과)
 - 2022. 05. : 서울 용산시제품제작소 민간위탁(신규) 추진계획 수립
 - 2022. 06. : 제4차 민간위탁운영위원회 개최·의결(적정 통보)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전자·IT제조 기술기반의 스타트업의 기술사업화, 시제품 양산,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우수한 민간 투자 네트워크를 통해 후속 투자유치를 연계하여 전자제조 기획·설계·제작·상품화 등의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기술, 노하우 및 인력을 갖춘 역량 있는 민간의 전문적 역량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다양한 민간기업 및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자 및 IT 제조 창업기업 보육에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서울 용산시제품제작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전자·IT 기반의 스타트업 맞춤형(기술사업화, 마케팅 등) 집중 육성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예비창업가·초기창업기업 시제품제작 특화지원
 - H/W와 S/W 결합의 전자·IT제조 스타트업 제품화 엑셀러레이터 지원

- 입주기업 선발·지원·평가·관리 업무 및
- 디지털대장간 및 상상가(원효전자상가 2,3층) 시설관리 및 운영
- 안전대책 및 재난대책 수립 및 매뉴얼 작성 등 시설 안전관리

※ 본 시설은 용산구 소유 시설로서, 서울시와 용산구 업무협약에 따라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5년간 무상사용(2027.12.31.까지) 함.

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2022.6.30. 개최) 심의 결과 : 적정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동의안의 개요

- 용산 원효전자상가에 소재한 ‘디지털대장간(민간위탁)’ 과 ‘용산전자상상가(용역)’ 사무를 통합하여 전자제조지원 특화시설로 민간위탁 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신규로 제출됨.


나. 서울 전자제조 산업과 용산 시제품 제작소 현황

- 서울의 전자부품제조 등 IT융합산업은 전국 사업체의 약 39.6%¹⁾를 차지하고 있고, 종사자 수만도 2만 7천여명에 이를 정도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큰 산업임.
- 용산은 2000년대 초반 해도 전기·전자제품의 제조부터 수리까지 전 영역을 갖춘 국내 최대규모의 전자산업의 메카였으나, 조립PC 시장의 축소와 온라인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 시설노후화로 상권이 쇠퇴하면서 공실률이 11.4%에 달하고 있음(서울평균 8%, 2020.).

1) 전국 4만 2,702개 사업체 중 1만 6,910개 업체(2019년 기준, 통계청)

- 이에 서울시는 용산전자상가²⁾의 잠재력을 활용하고, 드론, 가상현실(VR) 등 신산업을 더해 혁신전자제조 기업 인큐베이팅의 전초기지(Y밸리)로 육성하고자 ‘제조형 창업생태계 지원 및 육성 협약’ (2015.10.),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2018.7.) 등을 추진하고 있음.

<서울 용산 시제품 제작소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용산구 청파로 77(원효전자상가 6동 2, 3층 일부) ○ 개관일: 2층 디지털대장간(2016.6.), 3층 용산상상가(2018.8.) ○ 규모: 연면적 6,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층(576㎡): 시제품제작, 장비제공, 교육지원 등 - 3층(3,725㎡): 전자제조지원센터, 입주기업 공간, 사무실 등, - 옥상(1,937㎡): 드론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휴식공간 등 (연면적 제외) ※ 용산구 창업센터 및 시립대 입주공간 등 (1,700㎡) ○ '23년 예산(안): 1,986백만원(22년 예산안 기준) ○ 수행기관: 무브먼트 주식회사(용역) ○ 위탁기간: 2023. 1. 1. ~ 2025.12.31. ○ 운영인력: 11명(센터장 1, 3개팀 10) ○ 주요사무: 전자·IT 제조 스타트업 제품화 지원, 디지털대장간, 상상가 시설관리 및 운영, 시제품제작 지원 등
--	---

- 디지털대장간과 용산상상가는 원효전자상가 6동 2층과 3층 일부 공간에 조성되어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제작하고 창업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메이커스페이스로 자리매김함.
 - 디지털대장간은 2016년 시제품 제작 시설로 개관된 이후 (주)엔피프틴에 위탁·운영하여 왔으며, 2018년 나진상가에서 현재의 원효전자상가로 확장 이전함.

2) 용산전자상가는 선인상가(컴퓨터, 주변기기), 원효상가(컴퓨터), 전자랜드(컴퓨터, 음향, 전자제품), 나진상가(동별로 컴퓨터, 가전, 게임, 휴대폰 등 다양한 분야 업종 운영)로 4개 상가임.

- 용산상상가는 2018년 제조업 기업 육성의 거점 공간으로 조성·운영된 이후, 창업지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재생정책과에서 창업정책과로 이관됨(2021.7.).
- 2022년 7월 디지털대장간과 용산상상가의 위탁 및 용역기간이 만료된 이후 해당 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 ((주)도시혁신그룹 무브먼트)을 선정함.

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 서울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던 ‘디지털대장간’ 과 용역으로 운영 중인 ‘용산상상가’ 를 통합하여, 전자제조지원 특화시설인 ‘용산시제품제작소’ (이하 “ 시제품제작소”)로 운영하기 위해 역량 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할 계획임.
- 시제품제작소의 주요 사무는 ▶전자·IT 기반 기업 맞춤형(기술 사업화, 마케팅 등) 프로그램 운영, ▶전자제조·IT 스타트업 제품화, 엑셀러레이터 지원, ▶입주기업 선발·지원·평가·관리, ▶시제품 제작소 시설관리 및 운영사업 등임.
- 2016년 이후 시제품제작소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장비와 시설 이용, 가입 회원수 등에서 양호한 실적을 달성하고 있음.

<용산 시제품제작소 주요 성과>

사업명	주요지표 (단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누계
장비이용	이용실적(건)	1,347	3,331	2,426	6,990	2,320	2,045	18,459
시설이용	방문자(명)	4,263	14,961	4,891	15,544	3,970	2,503	46,132
가입회원수	가입회원수	1,127	1,460	1,299	1,586	782	713	6,967
입주기업 실적	2018 이후	23개 기업 입주, 매출(151억원), 투자유치(24억원), 고용(151명)						
기타성과	2018 이후	특허(5건), 수주(7건),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제조지원센터 유치(2021.3.).						

- 그러나 노후화된 시설로 인한 공실이 많이 발생하고, 기술창업을 위한 지원체계와 기업 간 연계, 용산만의 특화된 사업 등이 미흡해 입주기업 실적 등은 저조한 상황임.
 - 디지털장비, 3D 프린터 등의 장비를 운영하는 메이커스페이스가 전국에 409개소가 있어 차별화가 필요함.
 - 용산상상가는 개관 이후 개방형 협업 공간 제공, 교육장소 대 관 위주의 사업만 진행함.
- 최근에는 서울시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협업으로 전자제조에 특화된 전자제조지원센터를 용산상상가에 구축·운영함에 따라 (2021.12), 시제품제작소가 전자제조 스타트업 지원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 전자제조지원센터(운영기관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KEA)는 서울시가 공간을 제공하고, 산업부가 시설, 장비, 인력 예산을 지원함.

< 전자혁신제조지원 사업개요 >

□ 관련기관 역할

- (서울시)-공간·환경 구축, (산업부/전자진흥원(KIAT))-시설·장비·인력예산지원, (전자진흥회(KEA))-전문인력, 전자제조지원센터 운영

□ 사업기간/예산: 2021~2025년(5년), 국비 총 240억

- 전자혁신제조지원사업('21~'23, 60억원), 스마트전자 확산을 위한 제조실증('21~'25, 100억원)
- 데이터분석기반의 전자제조전문인력양성('21~'25, 80억원)
 (1단계) 도심내 소량제조, 소비자데이터실증, 상품화를 지원하는 전자혁신제조플랫폼 구축으로 중소·스타트업에 전자제조서비스 제공
 (2단계) R&D→제조→상품화를 한 곳에 집적하는 전자제조타운으로 확대

- 따라서 전자제조·IT 기술 기반 스타트업 육성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 인력을 보유하고, 우수한 민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후속 투자유치가 가능한 역량 있는 민간기관을 선정해 위탁운영 성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전자제조 시제품 양산을 위해 전자제조의 기획·설계·제작·상품화 등에 특화된 전문기술을 갖춘 추가 인력(3명)과 인건비(2억 7천 5백만원→7억 1천 8백만원)가 대폭 늘어난 만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성과관리가 요구됨.
- 또한 서울시가 용산정비창 일대(50만㎡)를 글로벌 도시경쟁력과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국제업무지구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하고(2022.7.), 도시재생혁신지구에 전자산업 기반의 창업문화복합허브 등이 조성될 예정이므로 해당 계획 등과 연계된 운영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시우	02-2180-8055